



호랑이들 기다리다 지칠라...

패이인 '폭우'에 포스트시즌이 일정이 늦춰지면서 KIA 타이거즈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15일 KIA 타이거즈는 12년 만의 한국시리즈 무대에 오르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4일 SK와 두산의 포스트 시즌 5차전 경기가 우천 노게임이 되면서 한국시리즈가 16일 출발한다.

상대팀이 비를 맞으며 5번째 경기를 치른 뒤, 하루 더 승부를 연장해 혈투를 벌인 만큼 전력을 비축한 KIA에게는 유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일정 변경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비 때문에 김이 빠진 건 사실이다. 반반의

준비를 끝내고 광주에서의 1·2차전 승부를 기다렸던 KIA는 전략수령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25일 최종전 이후 선수들은 20일 동안 그라운드에서 쉬지 못했다. 추석 연휴도 잊은 강행군으로 자신감을 채운 선수들은 D-데이에 맞춰 컨디션을 맞추고 한국시리즈를 기다렸지만 하루 더 기다려야 한다. 노장 이종범도 "경기를 안 한지 오래 됐는데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정상적으로 한국시리즈가 열리지 못해 아쉽다"며 기다림의 고충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마운드 리듬이다. 조범현 감독은 8일과 11일 두 차례 홈백전을 통해 마운드 구상을 끝냈다. 야간에 열리는

■ 하루 늦춰진 KS 개막전... KIA 득이나 실이나

힘빠질 대로 빠진 상대팀 요리 쉬워 득

경기감각 둔화·컨디션 조절 흩어져 失

1·2차전에 맞춰 8일 오후 6시 홈백전을 가졌던 조 감독은 윤석민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쉽게 1·2차전의 큰 틀을 완성했다. 11일에는 낮에 진행되는 3차전

에 맞춰 양현종과 구름슨을 시험 가동했다. 하지만 일정 변경으로 16일 야간에 1차전을 치른 후 17일 2차전을 낮경기로 치르게 됐다.

투수들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다. 경기 대부분을 야간에 치르는 선수들이 낮경기에 맞춰 컨디션을 잡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다. 각각의 통보된 날짜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렸던 선발진들에게 일정 변화는 크다.

금요일 비예보다 선수들에게는 고민거리다. 비 때문에 한국시리즈가 이를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용규는 "개막이 이틀이나 미뤄진다면 경기감각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며 "또 연속해서 주간경기를 치르면 선수단의 부담이 클 것이다"고 밝혔다.

올 시즌 KIA는 낮경기에 유독 약한 모습

을 보였다. 5번의 낮경기에서 전패를 기록했다. KIA가 낮 경기에 약했었고, 20일 넘게 경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경기를 주간에 치르게 된다면 KIA 선수들은 경기 감각을 찾는 데 이종고를 겪을 수 있다.

경험 부족의 KIA가 초반 흐름을 놓치면 허무하게 한국시리즈 승패가 결정지어질 수도 있다.

포스트시즌을 막은 '가을비'가 KIA의 우승까지 막을지 아니면 힘 빠진 상대를 손쉽게 요리해줄 단비가 될지 야구팬들의 눈길이 광주로 쏠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챔피언들의 샷을 보라”

국내 골프 '별들의 전쟁'

최경주·양용은 신한동해오픈서 맞대결

신지애·최나연·박인비 하이트컵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9승을 잡은 최경주(39·나이키골프)와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15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에서 열리는 제25회 신한동해오픈을 앞두고 각오를 밝혔다.

최경주는 지난 13일 강남구 논현동 임팩트 클럽에서 대회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대회 3년 연속 우승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첫째 목표다. 이번 주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좋은 성적을 내도록 열심히 하겠다"면서 "예전 동근 형태의 어드레스를 지금의 직각에 가깝게 바꾸고 있다. 이달 초 PGA 투어 터닝스톤 리조트 대회를 치르면서 점차 몸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임팩트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바로 스킨스대회가 열리는 대회장으로 이동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양용은은 "사실 이보다 더 피곤한 스케줄을 소화한 적도 있다. 나름대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고 오랜만에 한국에서 하는 대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미국 대표팀과 세계 연합팀의 대항전 프레지던트컵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싱클 매치플레이를 벌였던 양

용은은 "우즈는 너무 잘하는 선수다. 어제 도 거의 완패 아니냐"면서 "매치 플레이 경험도 부족했고 주위에서도 일반적으로 우즈를 응원하는 등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한국 골프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 최경주와 양용은은 2016년 하계올림픽에 골프가 정식 종목이 된 것을 언급하며 후배들의 분발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경주는 "사실 어릴 때부터 '왜 골프는 올림픽 종목이 아닐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번에 올림픽 종목이 되면서 선수들에게 목표가 생겼다"면서 "더 좋은 선수들이 골프에서 나올 수 있고 국가적인 정 책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메이저대회 가운데 하나인 제10회 하이트컵 챔피언십이 15일부터 경기도 여주 블루헤런 골프장(파72·6천553야드)에서 열린다.

올해부터 메이저 타이틀을 단 이 대회는 총상금 6억원으로 4개 메이저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상금이 걸려 있다. 작년보다 상금 1억원이 늘어났고 경기 일정도 3라운드 54홀에서 4라운드 72홀로 변경됐다. 여러 가지로 달라진 대회 위상에 걸맞게 외국 무대에서 활약하는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맞대결을 벌인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올해의 선수, 상금, 신인 부문에서 1위를 달리는 신지애(21·미래에셋)가 오랜만에 국내 팬들과 만난다.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 스타투어 그랜드파이널에서 우승한 이후 거의 1년 만에 다시 국내 대회에 출전하는 신지애는 작년 이 대회 챔피언이라 이번이 타이틀 방어전이다.

신지애는 "디펜딩 챔피언으로 하이트컵에 다시 나와 감회가 남다르다"며 "오랜만에 국내 대회에 나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 편도염으로 지난달 말 귀국한 신지애는 이번 대회와 30일부터 인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을 통해 다시 '골프 지존'의 위용을 보여준다는 각오다.

올해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맛본 최나연(22·SK텔레콤)도 이번 대회에 출전하고 US여자오픈 2008년과 2009년 챔피언 박인비(21·SK텔레콤)와 지은희(23·힐라코리아)도 우승에 도전한다. 해외파 만년니 커인 정일미(37·기가골프)와 강수연(33·하이트), 홍진주(26·SK에너지), 김주미(25·하이트), 양희영(20·삼성전자) 등 많은 LPGA 선수들도 출전할 예정이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파'들도 우승 경쟁에 가세한다. /연합뉴스



피겨퀸 김연아가 14일 오전(현지시간)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가 열리는 파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연아는 샤를드골 공항 입국장에서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더 완벽해진 '피겨퀸' 김연아

ISU 그랑프리 1차 대회

아사다 마오와 점프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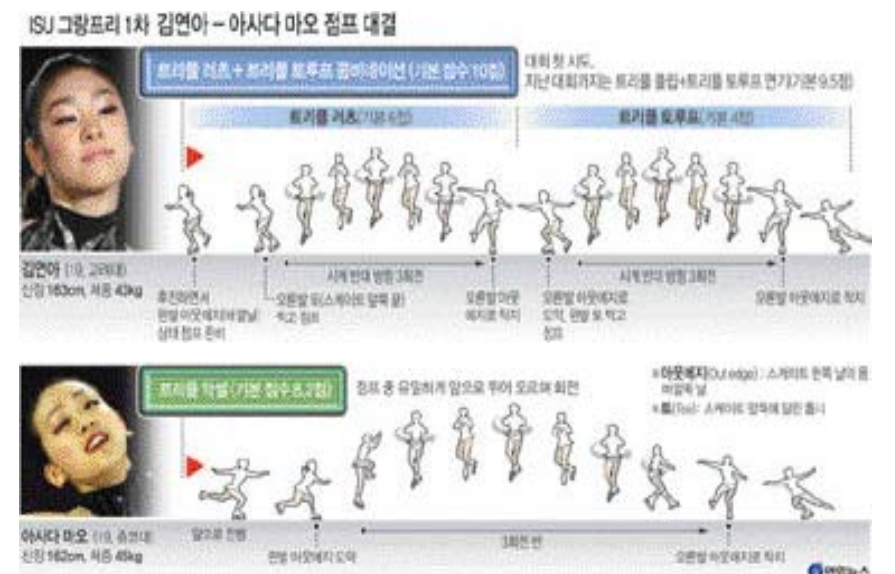
지난 5개월여 동안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정상 도전을 꿈꾸며 차가운 얼음 위에서 뜨거운 땀방울을 흘린 김연아(19·고려대)가 예비 메달 후보들을 상대로 '교과서 점프'의 진수를 펼쳐보인다.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15-18일·파리)를 시작으로 새 시즌의 서막을 올리는 김연아는 지난 13일(한국시간) 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를 떠나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동안 토론토 크리켓 클럽빙상장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새 시즌 준비를 진행했던 김연아는 시니어 무대 데뷔 이후 최고였다고 평가받았던 2008-2009 시즌보다 점프 완성도는 물론 연기력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번 그랑프리 1차 대회에는 김연아의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를 비롯해 여자 싱글 세계랭킹 1위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4위 나가노 유카리(일본), 미국 피겨의 기대주 캐틀린 장 등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역시 팬들의 관심은 '교과서 점프'로 유명한 김연아가 새로운 주력 기술로 내세운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과 아사다의 '필살기'인 트리플 악셀의



맞대결에 쏠린다.

김연아는 이미 "전체적인 컨디션을 봤을 때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준비가 더 완벽해진 것 같다"라며 스스로 평가할 만큼 준비를 완벽하게 끝냈다.

다들 점프의 시작과 마무리 동작에서 좀 더 섬세해진 안무를 통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예술점수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세운 김연아는 자신이 기록한 역대 여자 싱글 최고점(207.71점) 경신도 기대된다.

반면 아사다는 지난 3월 끝난 2009 제네바 오픈에서 프리스케이팅에 포함된 두차례 트리플 악셀을 모두 실패하면서 새 시즌 출발 직전부터 '베격' 소리를 내다.

특히 연결 점프에서 회전수 부족은 여전히 아사다의 문제점이다. 제겐 오픈에

서 아사다는 첫 번째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비롯해 트리플 플립-더블 루프-더블 톱프 콤비네이션까지 회전수가 부족하다는 관정을 받아 싱글 점프로 처리됐다. 이 때문에 아사다는 재팬 오픈이 끝나자마자 곧장 러시아로 이동해 타티아나 타라스바 코치와 함께 보안 훈련에 진땀을 흘렸다.

지난해 유럽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코스트너는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2위에 그치는 최악의 난조를 보였지만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대다.

하지만 코스트너는 트리플 플립-트리플 톱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뛸 수 있음에도 성공률이 낮아 실전에서는 트리플-더블 톱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주로 뛰고 있는 만큼 김연아 및 아사다와 점프대결에서는 한 걸음 뒤쳐져 있다. /연합뉴스